“님의 생애는 남은자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옛전남도청 앞 시민 3천여명 추모제
목포역 등 전남 곳곳서도 추모 행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22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에는 3천여명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추모제가 열려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넋을 기렸다.

특히 시민들은 광주·전남 곳곳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막바지’ 조문 행렬에 동참했고, 추모행사가 끝난 새벽까지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고인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옛 전남도청 앞 추모식에서는 3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애도했다.

시민들은 추모제가 열리는 동안 파란만장했던 김 전 대통령의 생애를 돌아보며 한국 정치의 ‘거목(巨木)’이 쓰러졌다는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또 군사정권 이후 호남의 정서를 대변해온 상징적 존재를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추모행사 내내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7시가 되자 옛 도청 앞 분수대 주변에는 고인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시민들로 가득 들어찼다. 시민들은 영상을 통해 고인에 대한 약력이 소개되자 굴곡 많은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광주와의 인연 등을 돌아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곧이어 깊은 침묵을 깨고 지선 스님이 추모사를 낭독하자 행사장에는 숙연함이 감돌았다. 시민들은 “선생님께서는 무엇이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님의 생애는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며 생명이고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추모사를 되새기며 ‘더불어 사는 세상, 통일세상, 평화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문병란 시인은 ‘행동하는 양심을 위하여’란 제목의 추모시를 낭독했으며, 천주교·기독교·불교·원불교 등 종교계는 장엄한 추모의식을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추모객들은 또 ‘목포의 눈물’을 한 목소리로 부르며 ‘DJ와 호남’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하의도 섬소년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지켜보며 상실감을 달랬다.

고인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 곳곳에서도 추모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날 목포역 광장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추모영상, 추모발언, 추모곡, 추모굿 등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민족화합을 기원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 생가에서는 밤 8시부터 3시간 동안 진도 씻김굿이 열려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2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시·도민 3천여명이 참여, 평생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넋을 기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조문객 30만명 육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닷새째인 22일 광주·전남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주말을 맞아 ‘막바지’ 조문에 나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위’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현재까지 광주·전남의 분향소 49곳을 찾은 조문객은 25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날까지 광주·전남 분향소에 모두 16만8천여명이 다녀간 데 이어 주말을 맞아 9만여명의 조문객이 몰려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분향소와 목포역 광장 분향소를 비롯,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전남제일고와 고향인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등에도 ‘불볕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분향소와 시내 곳곳에는 추모의 글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가로수에는 근조 리본이 매달려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당신은 우리입니다’

고은 시인이 쓴 DJ 헌시
신형원씨 추모곡 만들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곡이 완성됐다. 고은 시인이 김 전 대통령에게 바친 헌시 ‘당신은 우리입니다’에 ‘개똥벌레’로 유명한 신형원 경희대 교수가 곡을 붙였다.

최경환 비서관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인 시인의 추모 헌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곡으로 완성됐으며, 이날 오후 신 교수가 녹음실에서 반주를 넣고 직접 노래를 불러 음반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대통령 추모곡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정말 큰 분이고 그런 분을 잃은 전 국민의 슬픔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또 고은 시인의 시 내용에 걸맞게 장엄하고 웅장한 곡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최 비서관은 전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추모곡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신 씨는 아태평화재단 및 퇴임 후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며 교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나라사랑 그 마음 두 아들 배우길…”

온 가족 함께 분향소 찾은 박상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가족이 함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박상철(46)·이정담(39)씨 부부는 아들 둘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시도민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2일 광주시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은 박상철·이정담씨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헌화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주간의 일정으로 지리산 청학동에 예절교육을 받으러 간 아들에게 지난 18일, 이메일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전하고 광주에 오면 곧바로 분향소에 들리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박씨 가족 4명은 나란히 한 줄로 서서 영전에 흰 국화를 바치고 절을 올렸다.

헌화를 마치고 박씨는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인 무송(10)·무중(8) 두 아들을 데리고 분향소 주변을 돌며 김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무송군은 “대통령 할아버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강조하셨다고 아빠가 설명하셨다”며 “대통령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웃을 배려하고 동생을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부부는 “남북관계, 경제살리기, 민주화운동, 노벨 평화상 수상 등 고인의 업적에 대해 어린 아들들에게 간단히 설명했다”며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서거한 데 대해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슬픔을 같이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왔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참 〈7889〉 김종두

승합차 굴러 9명 중경상

22일 오후 광양시 옥룡면 도로에서 갤로퍼 승합차가 6m 아래 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모(49)씨 등 9명이 중경상을 입고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DJ·노무현 모교에 동상 교차 건립

쌍나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 중인 목포상고·전남제일고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동상을 모교에 교차 건립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

○…총동문회는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이 끝나는 대로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김 전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 운동에 나설 계획.

○…총동문회는 특히 생전에 동서화합을 이루고자 한 두 전직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영·호남 화합을 앞당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부산상고 교정에 김 전 대통령의 동상을, 목포상고에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김영수(55) 목포상고 총동문회장은 “동문회 일각에서 교차 건립 의견이 있어 부산상고 동문회 측과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